

월간 망고 통신

칼라 보고서

2013년 11월

제 2 호



올 것이 왔다! 3박4일간 모처럼 여유 즐겨 [특집보도 Excursion]



[아미스쿨] 세계지리 수업 종료되.. 다음은?



[도서관] 다가오는 개관식 분주해지는 아미들



“협력해준 칼라Y관계자분들께 감사” 평가단 밝혀



‘아이들을 유스멤버로’ Children Club 창설 임박

[이 시각 주요뉴스]

‘색다른 음악’, 아미 교회에서 한국어로 찬송가 불러
“우리도 교회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울리블라’ 연례행사 개최

[클릭 망고통신]

생일파티의 유일한 손님... 라온아미, Athmika 8번째 생일 맞아
아미식탁에 단비 내리다. 한국음식으로 풍성해져



편집장
King Kong
11월 사진사

그림 하는거?
마는거?

망고통신 기자
Ching Chong
11월 팀장

회의합시다!
청소합시다!
저녁 뭐 먹을래...??



망고통신 기자
Jjisoo
11월 회계

그건 좀
아니다 아니야?

망고통신 기자
Jimmee
12월 팀장예정

어떡해~!
다음달 팀장이야..

편집 및 발행인



집중보도 / 망고단신

- 26 '환영' 중간평가단 30 올리블라 연례행사
평가단 일정공개 유일한 손님, 아띠
- 28 Children Club 만들기 31 한국찬송가 울리다
아이들과 유스멤버 풍성한 아띠식탁
- 29 아띠멘토, 저스틴



특집보도 / 집중보도

- 3 Excursion!시작되다 20 아띠스쿨 세계지리
누와라엘리아 다음 아띠스쿨은?
도시의 추억(캔디) 22 도서관 개관식 임박!
- 13 정글 속 불교(담불라) 도서관 만들기
- 16 시기리야 25 도서관의 지원군
- 19 시기리야 정상에서



오피니언 / 기자수첩

- 32 남집미의 오피니언
작은 것도 이웃과 나누는 풍요로움
- 35 기자수첩 - 이킹콩 단원
기자수첩 - 최찌수 단원
기자수첩 - 박칭총 단원
- 38 12월 스리랑카팀에게 벌어진 일은?

11월 첫 주 고대하던 ‘스리랑카 첫 여행’ 시작 되



[망고통신 최씨수 기자]

11월 첫 제주는 아띠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첫 여행을 다녀온 기간이었다

스리랑카의 대표적 관광지인 누와라엘리아, 캔디, 담불라, 시기리야 등지를 방문하며 그 동안 활동을 하면서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팀원, 그리고 간사님 사이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겐 생소했던 그 단어...

Excursion :

짧은 여행, 당일로 구성된 단체 여행.

여행을 하면서 하루 하루가 지날 수록 왜 Trip이 아닌 Excursion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고산지대의 선선한 기후와 웅장한 문화유적들은 시간의 흐름을 더욱 재촉하는 듯 했다.

여행 마지막 날에는 너, 나 할 것 없이 ‘아~ 하루만 더 여행했으면~’ 하고 팀원들 모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규홍 단원 (남, 24세)은 “Kallar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라며 여행지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띠가 다녀온 곳은?

[누와라엘리야] Nov. 4-5

눈앞에 펼쳐진 푸르름,
그리고 차 발 노동자들의 푸르지만은 않은 삶..

스리랑카의 유일한 고산지대 누와라엘리야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론티의 원산지이자 선선한 기후, 눈부신 풍경으로 사랑받고 있는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커브가 심한 산길을 아슬아슬하게 오르며 도착한 누와라엘리야는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선선한 날씨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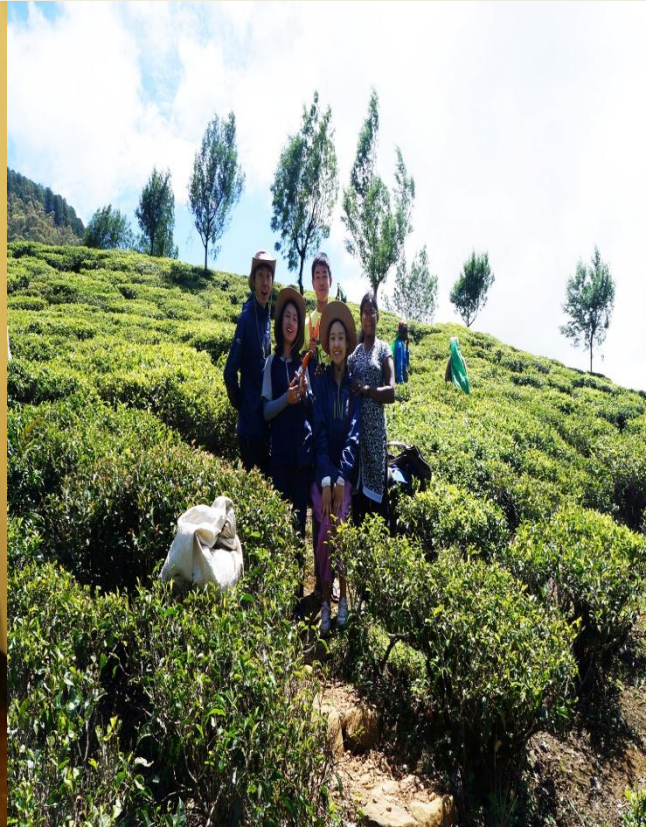
대표적 관광지답게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으며 선선하다 못해 사뭇 춥기까지 한 날씨에 대비하지 못한 관광객들을 위해 두꺼운 겉 옷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위) 아띠들이 묵은 Guest House

아띠들이 묵었던 숙소는 누와라엘리야 중심지에 위치한 우체국의 2층에 자리잡고 있는 Guest House였다. 깊은 역사가 서려있는 우체국과 은은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Guest House는 시설도 만점, 분위기도 만점이었다. 숙소가 여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무시 못하는 법! 첫 숙소로 누와라엘리야 우체국은 아띠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다.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최적의 기후 최고의 음식
우리 여기서 살면 안될까요...?**

누와라엘리야에 도착한 첫 날은 중심가만 잠깐 돌아보고 인드라 간사님의 부모님을 뵈었다. 동부지역에 살고 계시는 인드라 간사님과 스리랑카 중부 고산지대에 살고 계시는 간사님의 부모님은 평소 먼 거리 탓에 서로 왕래가 힘들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간사님도 부모님을 뵈고 우리도 함께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누와라엘리야 여행은 둘째 날 이루어졌다. 드디어 스리랑카의 명물인 Tea estate (차 생산지)에 방문했다. 쾌적한 날씨와 그보다 더 쾌적하다 못해 상쾌하기까지 했던 풍경들. 풍경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듯 했다. 차 생산 지역 중 '반다라나이케'는 몇 년 전 MBC와 KOICA가 함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마을이다. 우리는 그 마을로 가서 두 기관의 봉사단원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했던 학교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짧게나마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왼) 인드라 간사님 부모님과 함께, (오) 누와라엘리야 차 생산지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왼) MBC, KOICA 공동제작 다큐멘터리의 배경이 된 학교, (가운데) 식사시간 아이들 모습, (오) 다큐멘터리의 배경이 된 마을 '반다라나이케'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스리랑카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NCY-SL 사무총장님으로부터 들었던 차 밭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었다. 스리랑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Money”라고 하며 손을 내밀던 차 밭의 아주머니를 보며 그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기에는 마음이 무거웠다.

인드라 간사님은 “지금 정부의 관심은 온통 전국에 도로망을 까는 것에만 쏠려있다. 정부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리랑카 정책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다.



하루 12시간 이상 차 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이미 알아버렸으니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시원한 누와라엘리야의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푸른 차밭을 감상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 곳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들여다 보며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 더욱 유익한 여행지였던 것 같다.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띠가 다녀온 곳은?



(가운데 위) 차 생산공장을 견학 중인 아띠, 인드라간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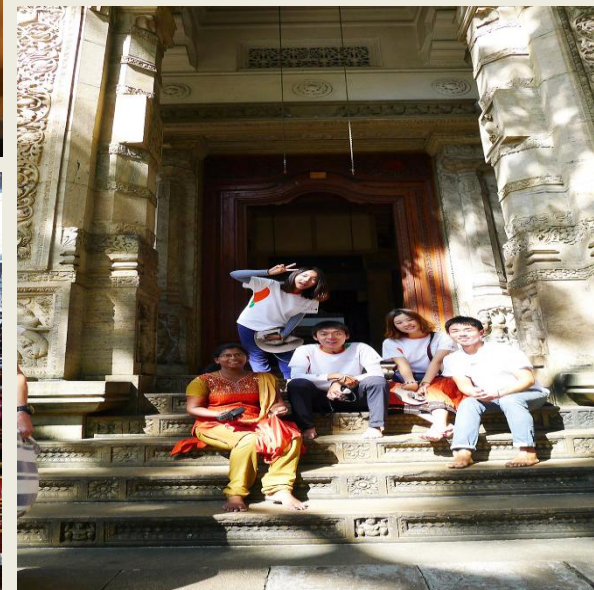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캔디] Nov. 5-6
스리랑카에서 맛본 도시의 추억

누와라엘리아에 이은 다음 방문지는 중부지방에 위치한 스리랑카 제2의 도시 '캔디'였다. 완전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캔디에 도착하자 우리의 기분은 사뭇 달라졌다. 두 달 동안 시골마을인 Kallar에 맞추어져 있었던 몸과 마음은 도시의 기운을 느끼자마자 언제 시골에서 지냈냐는 듯 도시 분위기를 만끽하기 시작했다. 넓은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대형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표하는 피자헛과 KFC까지! '이 곳이 바로 도시구나!' '내가 도시에 왔구나!' 하며 속으로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친근함에 탄성을 질렀던 것 같다. 캔디에 위치한 ODEL 백화점에서 우리는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을 위한 기념품을 사고 오랜만에 스리랑카 음식도, 한국음식도 아닌 "피자"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넷 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중 눈에 띄게 즐거워 했던 최지수 단원(여, 22세)은 "자신이 도시형 인간임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앞서 이규홍 단원이 말했던 것처럼 칼라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을 넋지시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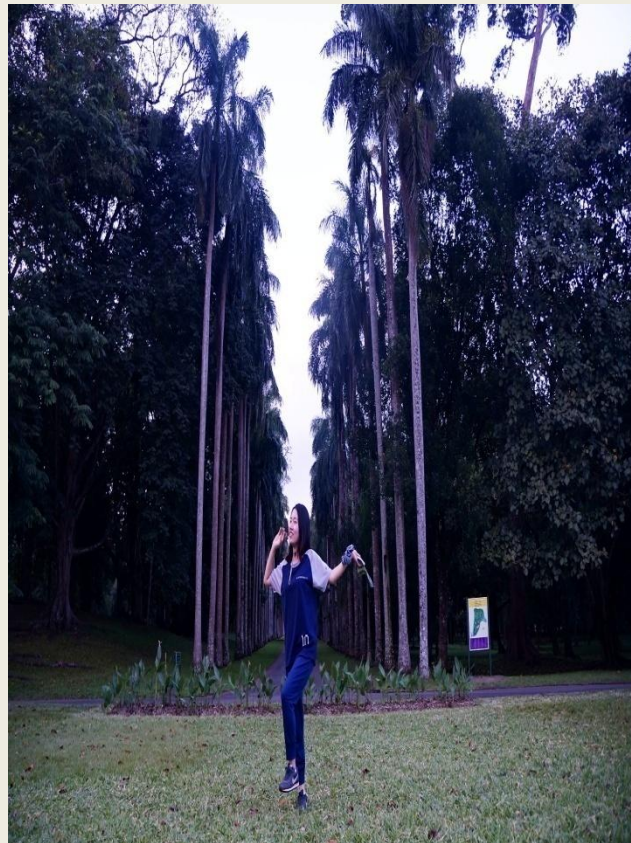
(왼쪽 상단) 스리랑카에 몇 안 되는 프랜차이즈 피자헛, (왼쪽 하단, 오른쪽) 석가의 이빨이 보존되어있는 '불치시'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캔디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페라데나 가든 <사진제공 = 빈센스 운전기사님>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왼) 페라테나 가든, (가운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집미단원, (오) 석가의 이빨이 보존되어있는 '불치사'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담불라] Nov. 6

싱할리 불교의 정석, 야생 원숭이의 천국?!

담불라는 세계 최대급의 황금 불상과 바위산 동굴 안에 만들어진 불상들로 매우 유명한 관광지이다. 웅장하다 못해 다소 무섭기까지 한 황금 불상 밑에는 싱할라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있는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 바로 옆 바위산 위에는 5개의 커다란 동굴이 있는데 각각 부처상이 있는 사원으로 꾸며져 있다. 간단한 설명을 듣자마자 직접 동굴 사원을 보기 위해 바위산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나지막 하다고 들었기에 쉽게 오를 수 있을 줄 알았던 바위산은 경사가 가팔라 오르는 데 쉽지만은 않았다. 동굴 사원에 도착하기 전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야생원숭이들이었다. 한국에서는 동물원에서나 철창 밖 멀리서 볼 수 있었던 원숭이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 여기 저기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담불라 Golden Temple & Rock Temple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평소 동물에 관심이 많은 이규홍 단원은 원숭이를 보자마자 매우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담불라 동굴사원을 다 보고 내려와 카메라를 확인해 본 결과, 사람보다 원숭이 사진이 더 많았다. 이로써 동물에 대한 규홍단원의 열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평소 불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우리 넷이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싱할라 불교의 다양한 양상을 접해볼 수 있었다.



스리랑카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물 <사진제공 = 이킵콩 단원>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정글 깊숙이 위치한 '싱할리불교의 정석', 담불라 Golden Temple & Rock Temple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시기리아] Nov. 7
광기의 왕, 미침이 만들어낸 미친 아름다움.

스리랑카를 소개하는 책자, 혹은 광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계문화유산인 시기리아는 바위산 정상에 위치한 5세기경에 지어진 궁전의 유적이다. 이 궁전을 지은 카샤파왕은 고대 스리랑카 역사의 유명한 왕이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동생을 내쫓아 왕위에 올랐으며, 동생의 보복을 두려워 하여 바위산 위에 궁전을 짓고 그 궁전 안에서 은둔생활을 했다. 결국 동생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자신이 지은 궁전을 버리고 도망가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다. 전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평지로 이루어진 스리랑카에서 시기리아는 매우 희귀한 지형임에 틀림없다.



(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시기리아, (아래) 시기리아 바위산 왼쪽에 그려진 벽화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41위??

홀로 우뚝 솟아 있는 바위산 정상에 궁전을 지었던 왕의 광기는 당시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겠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유적은 여전히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시기리야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스리랑카 관광산업이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 세기 전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왕의 광기가 적어도 그 후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듯 하다.



BBC 선정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41위' [시기리야] <사진제공 = 인드라 간사님>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시기리야 정상으로 오르는 길, (왼쪽 아래) 시기리야 벽화유적

짧지만 즐거웠던 여행.. 3박 4일간 아디가 다녀온 곳은?



(왼) 정상에 한발로 선 칭총단원, (가운데) 시기리야 정상의 모습, (오) 유독 높은 곳을 무서워한 짐미단원

대망의 세계지리 수업 종료... 다음은??



[망고통신 최씨수 기자]

세계지리 수업 종강

9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왔던 아띠스쿨의 첫 학기가 끝났다. 이에 따라 한 학기 과정으로 계획했던 세계지리 수업이 종강을 맞았다. 세계지리 수업은 회가 반복될 수록 아이들의 참여율이 높아졌던 인기 과목이었으며, 아띠들 역시 가장 즐겁게 임했던 수업 중 하나였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세계지리 수업에

서는 각 대륙 별로 대표적인 나라 3~4 국가를 뽑아 국기와 문화, 언어 등 관련된 상식을 전달해 주었으며 수업 내용을 되새기는 Activity로 마무리를 지었다. 오세아니아를 마지막으로 세계지리 수업을 모두 마쳤다. 아이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세계지리 수업에 대한 소감을 말해 주었다.

거의 모든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수보학생 (아띠스쿨 학생, 11세)은 “세계지리 수업은 매우 유익했으며 즐거웠다”며 수업 마지막에 자신의 소감을 발표했다.

12월부터 음악수업 시작 되

12월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음악 수업이 진행된다. 이는 정규 공교육 과정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예체능 수업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아띠들이 구상한 수업이다. 현재 한 학기 과정 (약 8주)의 강의계획서를 기획중에 있으며 한국노래와 영어노래,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타밀어 노래 까지 다양한 장르에 걸쳐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있다.



아띠스쿨 세계지리 수업의 통역을 도와주고 있는 코글라라지 칼라Y 이사장님

“도서관 프로젝트 방향 수정 필요” 리서치 그 이후...



[망고통신 박칭총 기자]

리서치 이후 프로젝트의 방향은??

도서관이란 공간에 대한 고민, 주민들의 관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된 10월 말 리서치와 리서치분석이 끝난 후, 아띠들은 도서관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해야 했다.

리서치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선호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책과 내용들로 구성된 공간을 만들기로 한 우리는 주민들이 리서치 결과 제일 선호했던 ‘인터넷과 컴퓨터 이용 공간’에 대해 고려해보았다. 이곳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인터넷 사용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사용에 대해서 많은 선호를 보인 것 같다.

아띠들은 이 사안을 2차 커뮤니티 미팅에서 제안하였다. 우리의 생각엔 현재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칼라 YMCA 자체사정과 현실적인 문제(관리문제, 요금문제 등)로 인터넷사용공간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칼라Y의 보관된 기존의 책들, 9기는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사업을 구상했다



11월 초 공사를 마친 칼라Y도서관 외부전경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놀이 감과 다양한 책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다시 한번 고민을 거듭한 아띠들은 주민들이 두 번째로 가장 선호한, ‘어린이 놀이공간’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다. 칼라YMCA에는 마을의 유일한 놀이터가 있고 그 놀이터를 더욱 발전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 모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

았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고민을 하던 끝에, 도서관과 어린이 놀이 공간을 한 공간에 꾸며 보는 건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했고, 단순히 뛰어 놀고 즐기는 공간이 아닌 교육적인 놀이 감과 다양한 책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도서관 만들기’ 시작 되

9월, 10월에는 ‘도서관’이란 공간을 두고 다양한 고민과 생각 그리고 이어지는 회의들로 조금 지쳐있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던 것들을

직접 실행하고 몸으로 움직이니 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진행했던 모금활동의 부족함 금액을 채워줄 수 있는 예산 청구였다. 스리랑카 YMCA연맹은 필요한 책의 목록을 작성해서 보내면 검토하여 부족한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근 도시인 Kalmunai의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필요한 책과 교구재를 살펴보고 가격을 조사했다. 유치원부터 10대 청소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서적과 20대 이상의 어른을 위한 소설책 등도 함께 고려하여 찾아보았다. 하지만 코디네이터 인드라간 사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서, 의사소통의 문제 그리고 책을 선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도서관 교구재 공간에 쓰일 합판을 보고 있는 청충단원

‘책과 다양한 교구재가 있는 도서관’이라는 큰 방향을 잡았지만, 책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분야로 나누어 공간을 구성할지 등의 세부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했다. 도서관 내부의 빈 벽은 어떻게 꾸밀지? 많은 선반들은 어떻게 채워야 할지? 와 같은 고민이 계속되었다. 결국 한쪽 벽에는 우리 캠페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End Poverty 캠페인’의 지속성이 유지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캠페인 때 사용했던 HAPPY TREE를 완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칼라YMCA와 스리랑카 YMCA연맹의 요청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공간에는 태극기, 한복, 비빔밥, 한글 등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아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꾸미기로 결정했다. 도서관에 놓일 책상과 의자를 수리하고 배치하

는 구상도 이루어졌다. 새로운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칼라YMCA에 있는 것들을 수리하여 이용하기로 하고 YMCA 곳곳의 현재 쓰이지 않는 책상과 의자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사용가능한 것들을 사포질하고 도서관에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여 페인트칠을 했다. 더불어 다양한 연령대가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각기 다른 크기와 높이의 책상, 의자를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많은 선반들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예전에 상점으로 쓰였던 현재의 도서관은 책과 도서관의 양에 비해 많은 선반으로 넘쳐난다. 처음에는 책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선반의 앞부분을 나무판자로 막아서 그 위에 교육용 포스터를 붙이거나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책의 보충과

선반의 다른 용도로의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부분만 나무판자를 설치하기로 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아래쪽 선반 일부에 판자를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하였다.

도서관에 '지원군'은 올 것인가? 중간평가단 새로운 의견 제시해

11월 말 중간평가가 있었다. 중간평가단으로 오신 이아나 간사님과 주은지 간사님 그리고 스리랑카YMCA연맹의 니랑가 간사님은 아띠들의 제일 큰 사업인 도서관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도서관의 진행상황과 현장을 둘러본 중간평가단은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해주었다.

아띠들이 7월 국내훈련을 받았던 울산YMCA에는 현재 다문화 작은 도서관이 개관하였는데, 그곳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언 해주었다. 그리고 아띠들이 귀국한 후 '도서관 사서 부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논하고 이전기수의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평가단의 니랑가 간사님은 도서관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꾸미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셨다. 간사님은 도서관에 시험용 교재를 배치하는 것에는 반대하며 스리랑카의 높은 교육열에 맞춰 오로지 시험에만 열을 올리는 이곳의 흐름을 따르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시험이 목적인 아닌 다양한 책과 교구재를 배치해 칼라주민과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꾸며진 도서관 벽면

★환영★ 중간평가단 칼라일정 시작 “칼라Y 관계자분들께 감사”



박 청 총
[망고통신 기자]

11월 25일부터 27일 까지 3일간 한국 YMCA연맹의 이아나 간사님, 스리랑카팀의 국내훈련을 담당했던 울산Y의 주은지 간사님이 방문하여 아띠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다양한 이야기와 조언을 해주었다.

25일 월요일 밤늦은 시각 칼라에 도착한 중간평가단은 아띠들과 이야기를 나누



후 26일 화요일 오전 평가회를 가지고 오후에는 아띠스쿨 태권도수업을 참관하였다. 또한 이날은 아띠들의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밤늦도록 아띠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인 27일 수요일 오전에는 이아나 간사님과 아띠들의 개인면담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영어수업을 참관하였다. 아띠들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직접 칼라 YMCA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해결해 주려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라온아띠 코디네이터를 계속하기 어려운 인드라 코디네이터의 문제를 듣고

많은 논의를 진행기도 하였다. 또한 아띠들에게도 “이제는 활동의 방향이 잡혔으니, 코디네이터가 하루 이틀 자리를 비우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로 아띠들을 안심시키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3달간, 이곳의 활동과 생활 속에서 아띠와 칼라YMCA관계자들간의 의견차, 속도차가 상당해 서로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 상처 받기도 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이 많았다. 두 간사님은 칼라YMCA 멤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며 한국인의 특성(매사의 ‘빨리빨리’를



(원) 11월 26일 열린 중간평가 모습, (오) 개인의견을 발표하는 킹콩단원

강조하는)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 결과 많은 오해들이 풀리기도 하였다.

‘중간평가’ 짧지만 새로운 전환점 되

2박 3일의 짧은 중간평가였지만, 아버지들에게는 마음 편히 한국어를 쓰면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를 4명의 아버지의 생각과 의견들로만 해결해왔고, 아버지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제3의 시선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아버지들 개인적으로, 팀으로 그리고 활동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신선한 기회였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시간들이었다.

“아이들을 유스멤버로” Children Club 창단 준비과정 돌입



박 청 총
[망고통신 기자]



Children Club 멤버들의 이름이 새겨진 ID카드, 창단식과 함께 배부된다

아피스쿨 학생들에게서 YMCA 소속감 느낄 수 없어...

9월부터 3달간 아피스쿨을 운영하면서, 아피스쿨의 학생들이 칼라YMCA에 어떤 소속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다. 단순히 수업을 듣고, 한국에서 온 아띠들과 관계를 맺고, 놀고 싶

칼라Y 유스멤버 부재.. 현재의 아이들부터라도 소속감 갖게 해야

어하는 아이들을 보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내가 칼라YMCA에서 공부하고 칼라YMCA와 밀접한 관계를 느끼기를 바랐다. 또한 칼라YMCA의 문제점 중 가장 심

각한 점은 사람이 없고, 칼라Y로 움직일 동력이 없다는 것에 관심 갖는 사람이 부족하기 큰 어려움이였다. 이에 관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해 아띠들은 지난 3개월간 ‘Youth멤버’가 없다는 것이 제 Youth들을 모으고 그들과 라 일 큰 문제이다. Youth가 없으 온아띠의 활동들을 이어나가 으로서 활동적이고 진취적으 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의

프로젝트를 도와주려는 청년 들은 많았으나, 적극적이고 전적으로 Youth멤버가 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또한 어렵고 고민스러운 점이였다.

아피스쿨 학생들은 소속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청년들은 칼라YMCA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지 않는 상황은 유스멤버를 모으려던 우리를 좌절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문제에 관해 칼라Y 관계자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던 중에, 인드라 간사님과 라온아띠 커미티 멤버인 저스틴이 ‘Children Club’을 만들어보면 어떨지 아띠들에게 제안을 했다. 아띠들은 처음에는 Youth 멤버를 모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Children Club 까지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Children Club의 어린이들이 나중에 Youth멤버로 성장할 수 있고 그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에 도달하자 네 명의 멤버모두 이에 동의하고 Children Club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뜻밖에도, 아띠들이 만들고자 하는 Children Club이 칼라YMCA에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hildren Club은 존재했지만 칼라YMCA 조직력과 힘이 약해지면서 그 기능을 잃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번 아띠들이 만드는 Children Club은 기존에 있던 Club을 재창설 하는 것이 되었다.

경험 부족한 아띠, Children Club 만들려면?

그러나 Children Club의 개념만 알뿐,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활동을 알지 못하는 아띠들에게 Club 재창설은 처음부터 난감하고 어려움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커미티멤버인 저스틴은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띠들은 단순히 리더십캠프와 같은 활동만을 생각했었는데, 저스틴은 다양한 활동을 제시했다. 주변 대도

시를 견학하며, 기차역, 도서관, 어린이공원 등을 방문하고 이웃한 YMCA를 방문하는 등 많은 아이디어를 내었다.

처음에는 아피스쿨의 학생들로 시작하여, 다음 기수가 올 때마다 모집 하고, 기수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스틴은 Children Club 멤버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임명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따라서 11월 마지막 주에 창단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약 2주간의 모집기간 동안 약 30명의 어린이들이 가입을 하였다. 아띠들은 이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ID카드를 제작했다 또한 초대장을 제작하여 창단식 손님맞이를 준비했다.

그러나, 현재 코디네이터 인드라 간사님의 부재와 칼라YMCA사정으로 행사는 12월 초로 미루어진 상태다.



아띠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관심 갖고 도와주는 저스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올리블라 연례행사 개최 되

올리블라 (Olivizha)란 크리스마스 전에 이루어지는 작은 행사를 의미한다. 주로 학교나 단체에서 어린이들 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행사가 준비되며 학생들의 공연, 성경 낭독, 선물 전달, 산타클로스 이벤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칼라 교회와 함께 위치한 여학생 쉼터 (18세 미만의 편 부모 가정의 여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에서 올리블라를 개최한다고 하여 아띠들도 초대를 받았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작은 행사라고 해서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채로운 공연과 경건한 성경 낭독,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연극까지 중간에 행사 진행을 어렵게 했던 비바람을 전혀 개의치 않게 하는 훌륭한 공연이었다. 올리블라에서 우리 단원들은 '특별한 손님'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함께 공연을 즐기며 행사 진행을 도왔다. 덕분에 크리스천 공동체와 더욱 가까워 지고 마을 주민들 역시 우리를 공동체의 같은 일원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다.



5번째 생일을 맞은 Healthi



아띠들을 생일날 유일한 손님으로 초대한 Athmika

'생일파티의 유일한 손님' 아띠

11월에는 우리와 친한 어린 친구들의 생일 파티가 두 번이나 있었다. 11월 18일은 옆집 박산디 엄마의 친척인 Healthi의 생일이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여서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신 Healthi 어머니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11월 23일은 교회에서 만난 Athmika의 여덟번째 생일이었다. 가족 이외의 손님은 우리 넷 뿐이어서 Athmika가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다. 초대해 주신 것 만으로도 감사한데 너무나 귀한 대접을 해주셔서 몸둘바를 몰랐다. 이 곳 스리랑카에서는 생일의 주인공이 모든 지인들을 초대하여 직접 친구와 친척들을 대접한다. 그리고 초대한 손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것을 보고 스리랑카의 생일 문화와 손님 대접문화에서 특히나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색다른 음악’ 아띠 교회에서 찬송가 불러



한국어로 찬송가를 부르는 아띠들 (마커스 - 부르신 곳에서)

한국 찬송가 접한 마을사람들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Athmika의 이모이자 Methodist Church의 지역 목사님인 찬드리카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11월 셋째 주 주일에 ‘특송’을 하게 되었다. 솔지 단원의 반주에 맞추어 한국어로 찬송가를 불렀는데 예배가 끝날 무렵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악수를 청하며 노래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었다. 그 동안 타밀어를 알아 듣지 못해 예배시간에

도 멍하게 앉아있거나 각자 성경을 읽곤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예배에 참석하고 한 마을 주민인 교회 식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반주중인 집미단원

한국음식으로 풍성해진 아띠식탁



(왼) 주enzi간사님의 선물 즉석호떡, (가운데,오) 현지재료로 만든 수제비, 라볶이

늘 카레로만 넘쳐났던 메마른 아띠식탁에도 단비가 내렸다. 중간평가로 현지를 방문한 아나,은 지간사님의 선물을 포함, 단원들의 가정에서 보낸 선물들로 아띠 집에 한국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신라면, 호떡, 양갱, 고추장, 특히 칭총단원의 가정에서 보낸 쥐포,

오징어에 아띠들은 감격스러워 했다. 랑카팀 메인쉐프 칭총단원은 현지재료와 한국재료를 섞어 수제비, 라볶이, 겉절이, 파전 등을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현재 단원들은 칭총단원을 중심으로 한국 음식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다.



매일매일 함께 요리하는 아띠



남 짐 미
[망고통신 기자]



남솔지의 혼자 다 말하는 시간. 주제 같은 것은 없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련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을 쓰는 지금은 스리랑카에 머물 것이 9주도 채 남지 않았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지금껏 간접적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야자수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설렘에 한껏 기대를 하고 비행기에 올랐었다. 스리랑카에 도착하고 공항 근처 호텔 테라스에서 야자수와 함께 셀카를 찍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지금은? 우리 집 마당에 널린 것이 야자수요, 퍽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그 큰 야자수 잎이 하늘에서 푹 떨어지는 소리였다.

9월, 10월에는 어떻게든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자 모르는 사람인데도 먼저 와나감!! 인사 하곤 했다. 살짝 피곤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인사에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답해주는 이 곳 칼라주민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웠다.

Y에서 처음 만난 아이들은 연신 내 얼굴과 손을 쓰다듬으며 뷰티풀!을 연발했다. 나는 뷰티풀하지 않다. 그대들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긴 속눈썹을 뷰러로 올린 듯한 너무나 예쁜 눈망울을 보란 말이야. 집에 거울이 없나!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피부색을 얘기하는 것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들은 까맣고 나는 하얗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게 다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도 살을 안태우려고 매일 아침 썬크림과 팔토시로 무장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중적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공항 근처 호텔 테라스에서 찍은 야자수 사진. 차마 셀카는 안되겠다.)



아이들 얘기가 나왔으니, 이 곳 칼라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을 말하라면 나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아띠스쿨 아이들을 말할 것이다. 특히 남솔지네 반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은 대부분 11살짜리 남자아이들이다. 아이들마다 수준차이가 있지만 아띠스쿨 아이들 평균수준에 비하면 영어도 꽤 잘하는 편이다. 그것보다도 마음씨가 너무 예뻐서 감동할 때가 많다. 비가 무척이나 쏟아지던 날이었다. 태권도 수업이 끝나고 우산을 챙겨오지 못한 아힐라스와 딜루를 챙겨 집에 바래다 주려고 한 우산 아래 세 사람이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YMCA-우리 집-아힐라스 집 순서라 아힐라스 집에 가려면 우리 집을 지나쳐야 한다. 갔던 길을 되돌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에 귀찮았지만 아이들이 비를 맞게 할 수는 없어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스탑!!!” 우리 집 앞 사거리에 도착해서 아이들은 가던 길을 멈춰 세웠고 나보고 집에 들어가라고 자기들이 나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비가 오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우산이 없는 너희는 어떡해!” 물었더니 자기들은 괜찮다며 씩 웃어 보였다. 안 된다고 버티고 서있으니 두 아이는 어느새 빗속으로 뛰어들어가 환하게 웃으며 저만치서 손을 흔들었다.

자신들 비 맞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기보다 나의 안부를 먼저 챙기는 예쁜 아이들이 있어 비록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지라도(자주 있는 일이다^^;) 나는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다.

“I love you!”하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아이들. “솔지 비루뽀 일레?(솔지 좋아하지 않아?)” 하면 “비루뽀! 비루뽀!(좋아! 좋아!)” 하며 또 부끄러워하는 귀여운 아이들.

큰일이다. 벌써부터 헤어짐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집에 돌아가야 할 때에 이리 예쁜 아이들을 두고 어찌 비행기에 오를지 걱정이다.



(위에서부터 칭송네로 옮겨간 자두/ 우리 반 극소수 여자아이 케이두샤/ 순서대로 아힐라스, 왁시, 헤르산/ 우리 반 남자아이들)

“우선순위 0순위 우리가족” “적은 것도 이웃과 나누는 풍요로운 마음”

솔직히 칼라에서의 라온아띠 활동은 힘들다. 인드라 간사님도 임신 초기 증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얼마 전부터 집에서 쉬고 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 일의 진행이 정체될 때가 많다. 눈 앞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들 뿐이어서 내가 이 곳 칼라에 와서 얻어가는 것이 이런 것들 뿐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스리랑카 엄마, 봐싼티 엄마는 집에 있는 망고 나무에서 딱 망고 몇 개를 먹어보라며 가져다 주었고, 단골 가게 가브리엘 슈퍼 할머니는 내가 들를 때마다 노래를 부르며 환영해주며 계산을 치르고 돌아가려 하면 불러 세우고는 입에 50원(5루피)짜리 과자를 넣어주었다. 또 거동이 불편하신 이름 모를 할머니는 처음 보는 외국인인 나에게 타밀어로 찰라찰라, 내용인즉, 따뜻한 밀크티가 있는데 목이 아픈 사람에게 좋다며 주신다는 것이었다. (당시 찬물을 너무 세게 들이켜서 목상태가 좋지 않았었다.)

이뿐만 일까. 알게 모르게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한국에서는 느끼기 힘든 것들이었다. 바로 옆집이 오늘 당장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웃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 나는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사소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걸까. 누구보다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적은 것일지라도 이웃과 나누는 풍요로운 마음. 이것이 내가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스리랑카에서 보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가치이다.

활동, 분명 중요하다. 내가 스리랑카에 온 이상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활동에만 목을 매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훗날 돌아보았을 때 나는 잘 살다 왔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다.

“스리랑카에 왜 왔니?”

내 대답은 한결같다. “잘 살다 가려고 왔습니다.”

남은 9주도 기대된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 지 모르는 것 아니겠나. 남은 9주는 더 치열하게 사랑하고 작지만 그 무엇보다 큰 가치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보련다.



이 킹 콩
[망고통신 11월 편집장]

“지금 나에게 스리랑카는 많은 개발도상국 중 그저 그런 한 나라가 아니다. 평생 관심 갖게 될 기대되는 나라다.”

월간 **망고** 통신
칼라 보고서

칼라라는 시골마을에 너무 익숙해진 것일까? 이곳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곳은 많지만 나를 깜짝 놀래켜줄 관광지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11월 첫 주에 여행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냥 기분 전환이나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3박 4일간의 ‘진짜 외출’을 떠났다.

한번 차를 타면 평균 5~6시간 이동해야 하는 차 안에서 보이는 건 야자수와 정글뿐이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누와라엘리아, 캔디, 담불라를 여행하며 “이 나라 꽤 멋진 곳 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것도 나름 내가 이 여행을 즐기고 있는 증거 같았다. 하지만 여행 일정 중 시기리야만을 남겨 놓고 있을 때 나는 정말 충격 받았다. 시기리야가 스리랑카에서 꽤 유명한 곳이고 무슨 큰 발톱조각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다. 홍보 사진 상에 그 발톱이 꽤 크기에 “음.. 볼만하겠네”하는 생각 정도였다. 조금에 기대가 있었던 지 나는 시기리야 여행경험이 있는 인드라 간사님과 칭총이형에게 어떤 곳인지 물어봤다. “그 바위를 올라간다고?, 정상까지 3시간이나 걸려?, 그 바위가 궁전이었다고?” 뭐 이런 곳이 있나 싶었다. 11월 7일 아침 시기리야를 올랐을 때 그 모든 기대는 이상을 넘어섰다. 무슨 큰 도시도 아닌데 볼 것이 무수하게 많은 시기리야에서 등반 3시간은 그냥 숫자 ‘3’에 불과했다. 바위에 새겨진 벽화부터 정상 바로 직전에 옛 왕궁의 정문이었다던 사자발톱상까지 (과거 사자머리도 있었는데, 입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시기리야는 웅장한 하나의 건축물이었다.

이 세상엔 내가 모르는 것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영국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할 곳 Top 50’ 중 41위라 하니 얼마나 볼 것이 많다는 건가!(시기리야 포함 6곳은 이미 가보았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많은 것들을 얻었다. 그래서 일까? 여행 이후 11월의 남은 3주 간 스리랑카의 좋은 느낌과 함께 활동할 수 있었다. 지금 나에게 스리랑카는 수 없이 많은 개발도상국 중 그저 그런 한 나라가 아니다, 평생 관심 갖고 지켜보게 될 기대되는 나라다.



최 씨 수
[망고통신 기자]

“이 곳에서의 행복을
조금씩 찾아보려 한다,
나의 V자 곡선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11월은 스리랑카에 와서 처음 제대로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달이었다. 몸과 마음을 이 곳에 적응시키느라,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들이닥친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 없었던 9, 10월과 달리 11월은 여행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내 몸은 이제 스리랑카에 거의 다 적응한 듯 하다. 우기를 맞아 더위가 한풀 꺾인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이어트를 생각해야 할 정도이니, 뭐 건강은 문제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이 곳에 완전히 적응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 스리랑카에서, 이 곳 칼라에서의 행복을 조금씩 찾아 보려 한다. 나의 V자 곡선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의 두 달은 내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하길.

월간

망고통신
칼라 보고서



박 청 충
[망고통신 기자]

“나는 ‘스리랑카마법’에
걸려있었다. 하지만 신데렐라가
12시면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스리랑카의
12시도 금세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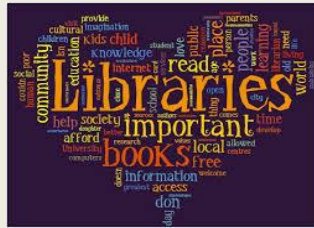
“1년 전 스리랑카를 여행 후 다시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나는 ‘스리랑카마법’에 걸려있었다. 언제나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들만 가득 찬... 하지만 신데렐라가 12시면 비참하고 비루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스리랑카의 마법이 풀리는 12시도 금세 찾아왔다. 역시나 지금도 환상적이고 강력한 마법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평범한 하루하루를 언젠가 사라질 마법의 순간처럼 소중한 여기기로 했다.”

앞에 글은 중간평가 때 개인소감으로 했던 말이다. 11월, 순간순간을 마법처럼 여기기로 했다. 지금의 여기에선 이것이 마법인지, 아니면 초라한 순간인지 판단이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다시 나의 집으로, 나의 학교로 돌아갔을 땐 이 시간들이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는 환상과 마법의 연속이 될 것이다.

요즘은 음식에 관심이 많아졌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음식은 나에게 큰 기억과 추억의 기여를 한다. 이곳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점심, 저녁때마다 옆집의 주방에 가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물어보고 직접 봐 보고 맛보기도 한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한국에서 하던 아침운동을 시작했다.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시작했다.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나면 옆집 선생님은 매번 수북한 밥과 커리 접시를 들고 오신다. 그럼 또 먹는다. 요즘은 저녁에 어떤 것을 사들고 귀국할까도 생각해 본다. 쌀 1kg, 통후추 한 봉지, 노란커리가루 1봉지, 커리고춧가루 1봉지... 12월에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만들어 보고 해야겠다.

7개월의 준비기간 ‘칼라YMCA도서관 개관식’

도서관 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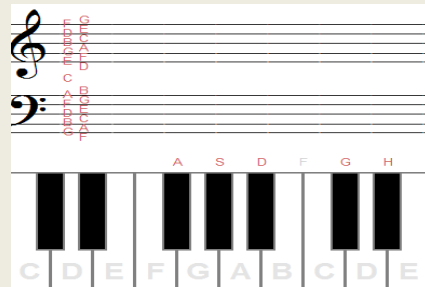
7개월의 준비기간!
칼라팀 9기, 10기가 염원
해온 '꿈의 도서관'은 열
릴 것인가?



12월 14일 Children Club 창단식
26명의 아디스쿨 학생들과 첫 걸음!

아디스쿨 음악수업

세계지리 바통 이은 '아디스쿨
음악수업' 세계지리의 인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 방문